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전통주의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부록 '전통주의', 839~853쪽(각주는 852쪽까지). 다음 부록이 Q이므로 이 글은 부록 P로 보인다.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먼저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전통이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자리까지 올라가면 '전통주의'가 된다고 선을 긋는다. 이 잘못은 원래 로마 교회와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었다. 특히 자유주의는 성경 대신 '식별화·대립·삼각비교'라는 세 방법으로 전통 안에 자기 자리를 만들어 왔다. 프레임은 이제 같은 습관이 복음주의와 개혁파 안에서도 자란다고 보고, 원인 셋(자유주의 학계에 노출, 무오성 논쟁의 피로, 과거의 좁음에 대한 부끄러움)과 나쁜 열매 여섯 가지를 짚는다. 결론은 종교개혁의 '오직 성경', 곧 성경의 충족성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성경이 최종 결정권을 가질 때 전통도 제자리를 찾고,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지운 멍에에서 자유로워진다.

📜 절별 정리

📜 1. 전통주의와 오직 성경 (원문 1절)

프레임은 전통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 하나님은 교회 역사 내내 교사들을 세우셨고 지금도 그들의 글로 말씀하신다. 그러니 그들에게 배우는 것은 마땅하다. 다만 종교개혁자들처럼, 가장 존경받는 선생의 가르침도 성경으로 검증해야 한다.
전통주의란 성경에 무엇을 빼거나(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거나 무시함) 더해서(사람의 가르침에 하나님 말씀만의 권위를 줌) '오직 성경'을 어기는 상태다.
프레임이 이 글에서 겨냥하는 것은 '더하기'의 한 방식이다. 성경을 깊이 살피지 않고

성경을 쓰기는 하지만 성경에 반대할 '거부권'을 쥐고 있어서 결국 자율적이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세 방법(식별화·대립·삼각비교)으로 전통 안에 자리를 잡는다.
프레임은 1960년대 중반 예일대학교에서 직접 이 방식을 겪었다고 증언한다.
교수가 좋아하는 운동이 기준이 되었고, 근본주의는 반면교사가 되었다. 학생들은 바르트(초월 강조)와 불트만(내재 강조)을 '넘어서는' 자기만의 새 입장을 만들라고 격려받았다.

1. 전통 존중은 옳다, 성경으로 검증한다면
2. 전통주의 = 성경에 더하거나 빼는 것
3. 더하기: 사람 말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줌
4. 로마 교회와 자유주의의 오래된 습관
5. 자유주의의 세 방법: 식별화·대립·삼각비교

> **신명기 4:2**
>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명령. 전통주의를 정의하는 기준
>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 **이사야 29:13-14**
>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선. '더하기'의 실례
>
> 13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 **마태복음 15:8-9**
> 예수님이 이사야를 인용해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는 것을 책망하심
>
>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 2. 복음주의적 전통주의: 무엇이 달라졌나 (원문 2절 도입)

복음주의 학자들은 자유주의 성향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세 방법이 '오직 성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복음주의 안으로 들어왔다. 프레임은 성경이 평가 기준을 주는 한 이 방법들 자체는 괜찮다고 본다. 문제는 성경적 기준 없이 쓸 때이며, 그때 이 방법들은 신학적 자율이 되고 '오직 성경'을 잃게 된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는 '오직 성경'을 고백하지만, 전통에 대한 강조는 꾸준히 커졌다. 30년 전 대표 학자들은 변증가·성경학자·조직신학자(고든 클락, 칼 헨리, 카넬, 반틸, 브루스, 패커)였다. 지금은 역사신학자이거나 교회사를 크게 강조하는 학자들(블로쉬, 갓프레이, 그렌츠, 호튼, 마즈든, 맥그래스, 멀러, 놀, 오든, 웰스 등)이 앞에 선다. 여기에 두 흐름이 더해졌다. 하나는 '신앙고백적 복음주의 연합'이 이끈 고백주의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성공회·로마 가톨릭·동방정교회로 옮겨 가는 일이다. 프레임은 이 학자들을 깊이 존경하며 깎아내릴 뜻이 없다고 미리 밝히고(각주 5), 원인을 세 가지로 제안한다.

1. 세 방법은 성경이 기준이면 문제없음
2. 기준 없이 쓰면 신학적 자율
3. 대표 학자가 변증가에서 역사가로 이동
4. 고백주의 운동과 다른 전통으로의 전향
5. 원인 셋 = 상황·규범·실존 관점(각주 6)

> **(이 절에서 저자가 든 구절 없음)**
> —

📜 3. 원인 ①: 자유주의 학계에 노출된 복음주의자 (원문 2-1 앞부분)

학계에서 존경받는 복음주의자는 대개 일반 명문대에서 학위를 받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세속 학계는 성경의 무오한 권위에서 결론을 끌어내는 학자에게 상을 주지 않는다. 프레임의 예를 들면, 옥스퍼드가 무오성을 변호하는 논문에 박사

방법만 따르면 일종의 골동품 취미 정도로 너그럽게 봐준다. 그러니 복음주의자들이 역사 연구에 몰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프레임은 이것이 잘못도 아니고 꼭 타협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 예가 존 거스트너다. 그는 자유주의 성향의 피츠버그신학교에서 교회사 교수로 있으면서 사실상 조직신학과 변증학을 '교리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가르쳤다. 스프롤은 리고니어 사역이 거스트너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위험도 있다. 성경적 기준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세 방법을 쓰는 습관에 빠질 수 있다. 메이첸처럼 이 영향에 잘 버틴 사람도 있었다(각주 8).

1. 세속 학계는 무오성 변호에 상 주지 않음
2. 역사 연구로는 인정받을 수 있음
3. 역사 집중은 자연스럽고 타협만은 아님
4. 거스트너: 역사 수업으로 교리를 가르침
5. 위험: 성경 기준 없이 세 방법을 습관화

> **(이 절에서 저자가 든 구절 없음)**
> —

📜 4. 복음주의 안의 세 습관: 식별화·대립·삼각비교 (원문 2-1의 (1)~(3))

식별화. 어떤 신학 운동을 사실상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습관이다. 개혁파에서는 열렬한 전통주의로 나타난다. 이때 신앙고백서뿐 아니라 예배·전도·목회 돌봄처럼 고백서 밖의 관행까지 기준이 된다. 그러면 종교개혁 너머의 추가 개혁도, 새 관행을 성경으로 평가하는 일도 불가능해진다. 개혁파 전통의 가장 기본 확신이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므로 이것은 아이러니다. 복음주의 페미니즘에도 식별화가 있다. 폴 주이트의 『여성 안수』에서는 페미니즘의 전제가 너무 강해서 바울의 권위까지 의심받는다.

대립. 어떤 운동을 '오류의 표본'으로 세우는 습관이다. 개혁파에서는 로마 가톨릭, 아르미니우스주의, 성령 운동, 세대주의, 해방신학,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대중문화가 흔히 그 자리에 놓인다. 프레임도 이 운동들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 안에서 참되고 좋은 것을 취하되 참된 문화에 맞도는 것을

그러면 거꾸로 잘못된 운동이 기독교 진리의 기준이 되고, 대립은 계시 밖에서 진리를 끌어오는 '자연신학의 변종'이 된다. 기독교 메시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에 근거해 긍정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프레임은 반틸의 '대립' 개념을 지지하지만, 반틸도 일반은총을 인정했고 대립은 성경 기준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보았다고 덧붙인다(각주 12).

삼각비교. 두 입장의 약점을 '넘어서는' 균형점을 찾는 습관이다. 그렌츠와 올슨의 『20세기 신학』은 모든 것을 초월과 내재라는 틀로 읽는다. 그리고 칸트·바르트·틸리히가 실패한 '균형'을 찾는 것이 복음주의의 임무라고 본다. 프레임의 답은 이렇다. 자유주의의 잘못된 틀 안에서 균형을 찾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라. 피녹 등의 '열린 유신론'도 삼각비교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하나님의 예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과정신학은 예지를 부정하지만 하나님이 세계와 구분되지 않는다. 열린 유신론은 그 중간에서 '초월적이지만 미래를 다 알지는 못하는 하나님'을 내놓았다. 프레임은 그들이 성경을 더 연구하면 자기 체계의 핵심인 자유의지론적 자유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1. 식별화: 한 운동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음
2. 개혁파 전통주의는 '늘 개혁' 원리를 배반
3. 대립: 반대편을 오류의 표준으로 삼음
4. 반대로 정의된 진리는 자연신학의 변종
5. 삼각비교: 균형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라

> **(이 절에서 저자가 든 구절 없음)**
> 판단의 잣대가 성경이어야 한다는 원리만 반복함

"이 점에서 개혁주의의 전통주의는 완전히 반전통적이다."

📜 5. 원인 ②: 무오성 논쟁에 지친 복음주의 (원문 2-2)

무오성을 주장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 싸움이 안팎으로 번졌다. '성경 무오성에 관한 국제협회'가 많은 글을 냈지만 결과는 아직 두고 봐야 한다. 무오성이 복음주의를 자유주의와 가르는 표지였기 때문에 정체성 위기가 왔다. 제한 무오론자들은 자유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동정녀 탄생, 기적, 대속, 육체 부활, 재림을 믿는 초자연주의자들이었다. 어떤 무오론자는 그들을 복음주의 밖으로 밀어냈고, 어떤 이는 공통점을 찾으려 했다. 질문이 종종 해석 문제로 바뀌면서(예: 창세기 1장의 날이 24시간인가) 흑백 논쟁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자유주의 쪽에서도 성경을 더 진지하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나와 간극이 좁아졌다. 그 결과 피로가 찾아왔고, 세세한 정확성을 다투지 말고 공통의 방법을 찾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 방법이 역사학이다. 판넨베르크가 모든 신학 진술을 종교적으로 중립인 역사학으로 검증하자고 했을 때, 증거로 믿음을 변호하던 많은 복음주의자가 환영했다. 그러나 중립적 역사학에 기댄 신학은 진리의 기준을 성경 밖에서 찾게 되고, 결국 다시 세 방법으로 흐른다.

1. 무오성은 복음주의 정체성의 표지였다
2. 내부 논쟁이 정체성 위기를 낳음
3. 해석 문제로 바뀌며 피로감 확산
4. 대안으로 '중립적 역사학'이 떠오름
5. 중립이란 기준을 성경 밖에 두는 것

> **창세기 1장**
> 무오성 논쟁이 해석 논쟁(창조의 하루가 24시간인가)으로 바뀐 예
>
>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

이 세대 복음주의자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요구를 받아 왔다. 칼 헨리는 『미국 근본주의의 불편한 양심』(1947)에서 학문의 빈약함과 사회 정의에 대한 무관심을 꾸짖었다. 전후 신복음주의는 그 노선을 따라 근본주의를 다시 세우려 했다. 한편 다른 이들은 복음주의가 교부들, 어거스틴, 동방 교부들, 로마 교회의 예배 전통 같은 기독교의 뿌리와 끊겨 있다고 느꼈다. 예배에 초월감과 깊이가 없고, 아름다움이 없으며, 문화적으로 좁다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일부는 성공회·로마 가톨릭·정교회로 옮겨 갔고, 일부는 남아서 더 넓은 전통을 존중하자고 촉구했다. 프레임은 이것을 성경적 교회 일치 의식이 다시 깨어나는 신호로 환영한다. 그러나 이 흐름이 '오직 성경'을 약하게 만든다면, 교회가 다시 하나 될 유일하고 확고한 근거를 빼앗아 결국 일치를 해친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전향한 사람들은 자기 전환점이 '오직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 그리고 전통을 (성경과 함께) 계시의 원천으로 보는 데서 시작했다고 말한다.

1. 헨리: 학문 빈곤·사회 무관심을 꾸짖음
2. 예배에 깊이와 초월이 없다는 갈증
3. 일부는 성공회·로마·정교회로 전향
4. 일치의 갈망은 환영, 근거는 성경뿐
5. 전향은 '오직 성경' 의심에서 시작

> **(이 절에서 저자가 든 구절 없음)**
> —

📜 7. 전통주의가 낳은 여섯 가지 결과 (원문 3절)

프레임은 전통주의가 오늘날 복음 증거를 약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여섯 가지를 든다. 첫째, 성경이 자유를 준 영역에서 양심을 묶는다. 예컨대 대중음악은 늘 예배에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바울의 태도(고린도전서 9:22)와 부딪힌다. 이 주장은 대개 장르의 기원과 전통과의 불일치라는 역사적 논거에 기댄다. 둘째, 불필요한 분열과 파당을 만든다. 셋째, 성경 해석에 근거한 논증을 전통 논증으로 바꿔서 신학의 합리적 기초를 약하게 만든다. 전통만 근거로 한

대중문화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가정에서만 성립한다. 그 가정은 증명할 수 없고 일반은총 교리와도 맞지 않는다. 다섯째, 문화와 완전히 분리하자는 주장은 지상명령과 맞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안에 있으며, 세상이 쓰는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현대 예배 음악은 많은 사람이 쓰는 음악 언어로 말하려는 시도이고, 바울도 예배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을 강조했다. 여섯째, 복음주의와 개혁파를 전통으로 정의하려는 움직임이다. 프레임은 '신앙고백적 복음주의 연합'의 캠브리지 선언과 그 집회에서 나온 현대 예배 비판을 예로 든다. 그는 이 문제가 복잡하고 모두가 자기에게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고백서도 판정하지 않는 문제에서 현대 언어로 찬양하는 사람을 복음주의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역사적이고, 분열을 낳으며, 사실도 아니라고 말한다.

1. 성경이 허락한 곳에서 양심을 묶음
2. 불필요한 교회 분열을 낳음
3. 해석 대신 전통으로 논증, 설득력 상실
4. '어디서 왔나'로 판단하는 발생론적 오류
5. 지상명령과 소통의 원리를 놓침

> **고린도전서 9:22**
>
>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바울. 문화 형식에 대한 자유와 선교적 유연함
>
>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 **요한복음 17장**
>
>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구하신 예수님의 기도. 분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음
>
> [1]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영화롭게 하옵소서 [6]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 교회의 파당 책망. 전통주의가 낳는 파당의 문제

마태복음 28:18-20

지상명령. 문화와 완전히 분리하자는 주장과 맞지 않음

[18]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예배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강조. 현대 음악 언어 사용의 근거

[1]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2]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3]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6]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

고린도후서 10:5

(각주 22)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 문화를 피하기보다 정복하라는 카이퍼의 권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 8. 해결책: 오직 성경 (원문 4절)

해결책은 종교개혁의 원리인 '오직 성경', 곧 성경의 충족성을 다시 듣는 것이다. 프레임은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리이므로 그 자체로 '전통적'이라고 짚는다. 성경은 스스로 이 원리를 선포한다.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책망하며,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한다. 물론 성경은 싱크대나 자동차 고치는 법을 알려 주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 믿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말해 준다. 차를 고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도 알려 준다. 예배에도 성경에서 직접 끌어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이 말하는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로 정할 상황'이 그것이고, 그래서 전통이 들어설 자리도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성경에만 있다. 역사적 주장도, 문화 비평도, 교회의 신앙고백조차도 궁극적 규범이 될 수 없다.
'교회가 성경보다 먼저'라는 반론에 대해 프레임은 이렇게 답한다. 아담에서 모세까지 기록된 계시의 분명한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순간 그것은 언약 백성의 헌법, 곧 최고 권위가 되었다. 새 언약도 기록된 말씀이 다스린다. 따라서 예배 문제는 이런 순서로 묻는다. 성경이 무엇을 명령하는가? 성경의 일반 원리 안에서 우리에게 맡긴 자유는 무엇인가? 프레임은 음악 양식이 자유의 영역이라고 본다. 성경과 맞지 않는 현대 양식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려면 전통이나 기원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성경 원리로 보여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초월과 거룩, 지상명령, 예배자의 덕 세움이 모두 그 원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오직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헌장이다.
예수님의 쉬운 멍에를 메면, 전통을 법으로 지우는 사람들의 멍에를 벗게 된다.

1. 오직 성경 = 성경의 충족성
2. 구원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이 말함
3. 예배의 '상황'에는 전통의 자리가 있음
4. 고백서도 궁극적 규범은 아님
5. 오직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헌장

> 신명기 4: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32

같은 명령을 반복함. 예배 규례 문맥에서 가감 금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호수아 1:7

율법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기록된 말씀이 언약 백성의 헌법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잠언 30:6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지혜 문학에도 있는 같은 원리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요한계시록 22:18-19

성경 끝에 다시 나오는 가감 금지. 정경 전체를 감싸는 경고

18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사야 29:13

사람의 계명으로 배운 경외. 전통주의의 원형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태복음 15:8-9

예수님이 바리새인 전통주의자들에게 이사야를 적용하심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디모데후서 3:16-17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함. 새 언약도 기록된 말씀이 다스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3:17

무엇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성경 밖 영역에도 주는 원리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23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일상의 일에도 성경이 방향을 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태복음 11:30)

저자는 장절을 달지 않고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고만 말함. 자유 헌장 결론의 배경

마태복음 11: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직 성경만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전통주의
교회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올려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태도. 전통 존중과는 다르다.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라는 종교개혁 원리. 다른 모든 가르침은 성경으로 검증받는다.

성경의 충족성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믿음·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충분히 담겨 있다는 뜻. 모든 지식이 다 있다는 말은 아니다.

식별화·대립·삼각비교
프레임이 만든 용어. 한 운동을 기준으로 삼기, 한 운동을 오류의 표본으로 삼기, 두 운동의 약점을 '넘어서는' 새 입장 만들기를 뜻한다(각주 3: 헤겔식 정·반·합 구조).

무오성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참이며 틀림이 없다는 교리. '제한 무오'는 신앙과 구원 문제에서만 틀림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교도권
로마 가톨릭에서 교회(교황과 주교들)가 성경과 전통을 권위 있게 해석한다는 가르치는 권위.

늘 개혁되는 교회(semper reformanda)
교회는 성경에 비추어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파의 표어.

발생론적 오류
어떤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만 보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논리적 실수.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과 문화에도 베푸시는 선함. 그래서 세상 문화에도 참되고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교구주의
원문의 parochialism을 옮긴 말. 자기 울타리만 보는 편협함을 뜻하며, 교구 제도와는 상관없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전통을 존중하는 것과 전통을 성경 위에 두는 것은 다르다. 전통주의는 성경에 더하고 빼는 일이다.
- 성경 없이 쓰는 식별화·대립·삼각비교는 자유주의의 방법이며, 지금은 복음주의 안에서도 자란다.
- 전통주의는 양심을 묶고, 교회를 나누고, 논증을 약하게 하고, 지상명령을 가로막는다.
- 해결책은 성경의 충족성이다. 성경만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헌장이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22편 · 오직 성경, 그러나 혼자 읽지 않는다 · 성경주의와 전통주의 사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